

2008년 11월 4일 화 말씀

목회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.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히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. 신앙을 제대로 넣어주어야 합니다. 나는 100살을 산다면 90년은 배우고 10년은 펼 것입니다. 그만큼 자세히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. 큰형과 작은형은 나보다 더 일찍 목회를 시작했으나 나는 늦게 시작했습니다. 산속에서 오래 있으면서 계속 배웠습니다.

열심히 해야 합니다. 나중에 온 사람은 얼굴을 잘 모릅니다. 그러나 어차피 청중 속에 가면 못 봅니다. 순회 한번 하는데도 2년씩 걸립니다.

중고등부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. 관리도 잘 해주어야 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넣어줄 때 신앙만 하지 말고 문화 선교와 같이 접목해서 해야 합니다.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. 하루만 뛰고 마는 것이 아니니 오래 설 수 있도록 신앙도 잡아주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.

월명동에서 밤에 행사 안 하니까 조명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. 밤에 사용하면 비용이 천만원이상 듭니다. 그래서 낮에 태양조명 아래서 마음껏 하라고 한 것입니다. 섭리에서는 낮에 행사를 하고 세상은 밤에 합니다.

정신이 중요합니다.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 자꾸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. 정신지체도 온전한 정신으로 다스려야 합니다. 정신문제도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.